

퀀틴전시 플랜

밸류업 지수는 한국 증시 밸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투자전략팀]

조재운 / Quant Strategist
jaeun.jo@daishin.com

이경민 / Strategist
kyoungmin.lee@daishin.com

경제지표

밸류업 지수는 한국 증시 밸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 9월 24일 KRX는 밸류업 지수 방법론과 구성 종목을 발표. 밸류업 지수는 연초부터 한국 증시 밸류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감을 확대
- 단기적으로 KOSPI와 KOSDAQ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부양효과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
- 밸류업 지수의 단기적 부양효과는 제한적. 대형주에 의한 증시 부양 효과는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형성되던 2024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반영. 따라서 지수 발표에 따른 추가적 부양효과는 제한적으로 전망. 중형주 중 발굴되지 못했던 종목이 밸류업 지수에 추가됐을 경우 주가 상승이 예상되나 시가총액 규모를 고려했을 때 증시 전체 부양 효과는 제한적
- 증시 전체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밸류업 지수의 상승을 주도할 업종은 IT, 헬스케어 섹터가 될 것으로 전망. 기존 대형주는 밸류업 기대감이 선반영됐으며 특히 대표적 저평가주로 선반영이 컸던 금융, 자유소비재(자동차), 산업재(지주) 중 편입되지 못한 종목은 발표 이후 하락 가능성 상존
- 섹터별 쿼터제가 실시되면서 밸류업 기대감과 거리가 멀었던 섹터(IT, 헬스케어) 내 종목이 밸류업 지수 상승을 주도할 전망
- 중장기적으로 한국 증시 부양 효과 유효할 것으로 판단.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 중 하나인 밸류업 지수가 의도대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은 기업이 밸류업 지수에 들기 위한 노력
- 밸류업 지수는 기업가치(밸류)가 낮은 기업의 밸류를 높여주기 위한 지수가 아니라 기업가치가 이미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지수. 인센티브를 위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려는 기업의 노력이 기업가치를 높여주는 시스템
- 밸류업 지수에 편입됨으로써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1) 주가상승과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금조달 용이성 증가와 2) 기업 이미지 제고(Name and Shame)가 있음
- 1) 주가상승과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금조달 용이성 증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밸류업 지수 관련 상품에 자금 유입이 커야 함. 밸류업 지수의 수익률이 벤치마크(KOSPI 또는 KOSPI200)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러운 자금 유입은 크지 않을 것. 이 같은 경우 연기금의 자금이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 존재
- 일부 기업은 2) 기업 이미지 제고(Name and Shame)를 위해 밸류업 지수에 편입 또는 잔존하려고 노력. 이 같은 노력이 기업 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

요일 주제

월 이슈/변곡점 분석 및 전망

화 경제지표/이슈 점검

수 증시 성과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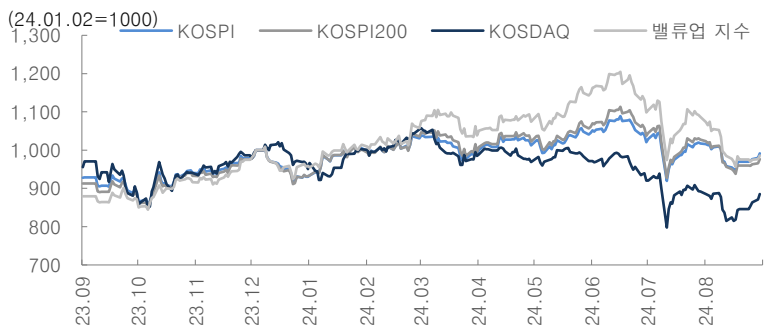
목 실적 컨센서스 점검

금 밸류에이션 점검, 주간 전망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장**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밸류업 지수(예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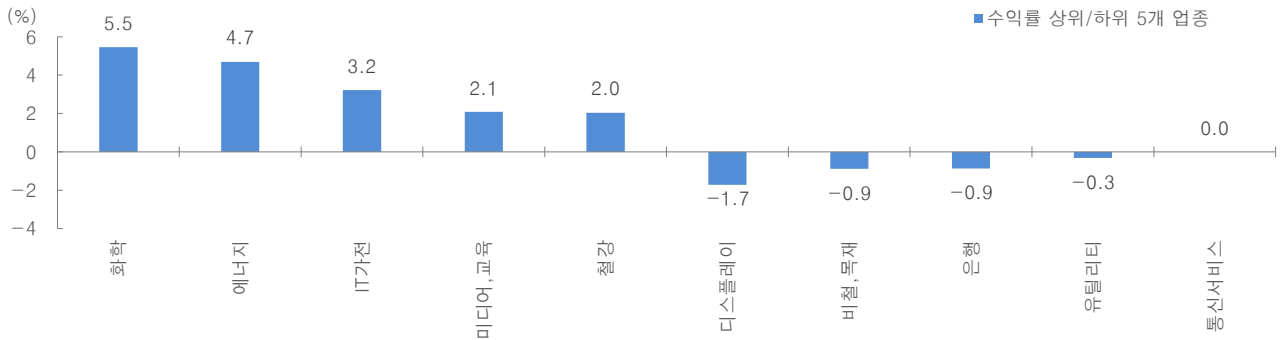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업종 수익률 및 특징주

- 미국과 중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훈풍 유입. 중국 노출도가 높은 화학 섹터 강세
- 테슬라 전일 2024년 3분기 전기차 인도량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IT가전 섹터 급등
- 미국 송전망 투자 지속 전망 및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한 기대감 유입되며 한화솔루션 등 에너지 섹터 상승

수익률 상위/하위 5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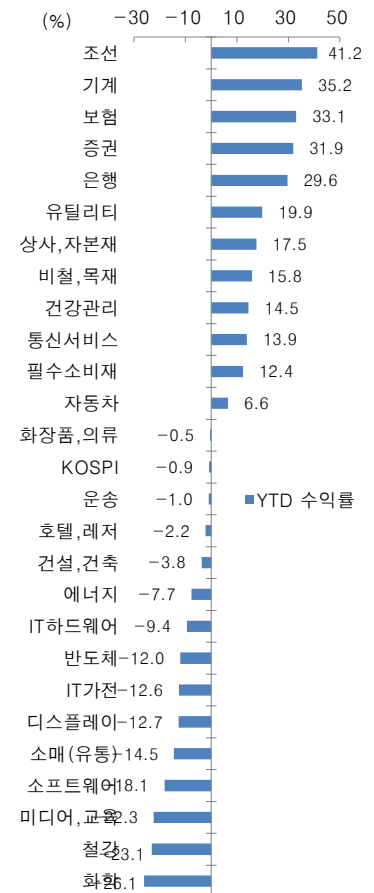
기준일: 24.09.24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현재가 (p)	등락율(%)						
		1D	1W	1M	3M	6M	12M	YTD
KOSPI	2,632	1.1	2.2	-2.6	-4.8	-4.3	4.9	-0.9
에너지	3,837	4.7	6.8	6.5	6.2	0.8	-8.2	-7.7
화학	4,992	5.5	6.9	6.7	-10.3	-22.0	-28.3	-26.1
비철, 목재	4,546	-0.9	3.6	15.4	11.8	16.7	1.5	15.8
철강	2,563	2.0	4.3	11.1	1.5	-12.2	-31.2	-23.1
건설, 건축	1,209	1.8	0.7	-4.0	4.1	-0.2	-6.7	-3.8
기계	3,224	0.4	6.1	0.0	-7.3	17.4	30.8	35.2
조선	3,690	0.6	5.9	1.4	17.4	32.4	38.0	41.2
상사, 자본재	1,586	0.7	1.2	3.1	5.0	1.8	27.9	17.5
운송	1,508	1.5	4.5	4.2	1.8	9.3	8.5	-1.0
자동차	9,447	1.1	3.9	0.2	-12.1	-5.3	16.4	6.6
화장품, 의류	4,033	1.0	1.1	5.2	-6.2	7.0	0.4	-0.5
호텔, 레저	1,822	0.7	-2.0	7.6	2.6	-8.4	9.1	-2.2
미디어, 교육	502	2.1	-0.4	-4.9	-12.1	-15.1	-23.8	-22.3
소매(유통)	1,729	1.6	-0.5	1.3	-1.6	-9.0	-22.5	-14.5
필수소비재	5,474	0.0	-0.4	-0.5	-1.0	15.4	14.8	12.4
건강관리	9,680	0.6	7.6	7.4	28.5	16.4	38.2	14.5
은행	1,815	-0.9	0.5	-5.6	7.0	2.5	33.5	29.6
증권	1,323	0.0	0.2	-0.6	16.4	6.1	38.9	31.9
보험	7,599	0.5	0.7	-1.1	5.3	4.2	26.7	33.1
소프트웨어	5,634	1.0	2.3	0.2	-0.4	-10.3	-6.4	-18.1
IT하드웨어	871	0.3	3.2	-4.8	-12.0	-4.2	-4.8	-9.4
반도체	8,743	1.1	-1.0	-16.7	-22.9	-16.0	1.4	-12.0
IT가전	2,342	3.2	6.5	15.7	4.7	-10.4	-18.3	-12.6
디스플레이	680	-1.7	2.4	-5.0	-10.2	-4.2	-16.8	-12.7
통신서비스	320	0.0	-1.2	3.3	9.6	6.3	14.8	13.9
유틸리티	783	-0.3	-5.2	-3.0	-2.6	3.6	23.1	19.9

주: Top 5, Bottom 5
 기준일: 24.09.24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이경민, 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